

## 뒤통수치는 세상

맥주 친구 사교수는 분을 삭이지 못해 씹씩대었다.  
단숨에 맥주잔을 왈칵 쏟아 놓더니 고향을 지른다.

- 야이 친구야, 시상이 와 이래 더럽노?
- 무슨 일인데?
- 외제 차 모는 연놈들은 다 그 모양이가?



아파트에서 근무처 대학까지 출근길 두 군데나 음주단속을 하길래 차창을 내리고 한마디 했단다.  
<아침마다 음주 측정을 매일이다시피 두 번씩 당하는 사람의 짜증을 경찰 너거는 알고나 있나?>하는데.....  
밝고 있던 브레이크가 느슨해졌는지 50 cm 정도 굴러가서 앞에 주차된 인피니티를 살짝 받았단다.  
받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았다>고 했다.  
이내 젊은 여자가 내리더니 <달은 부분>을 살피고 난 후 다짜고짜 친구에게 엄포를 놓더라.

-이런 외제차 범퍼 교환할라카마 비용이 만만찮습니데이?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으소이.....

아무리 살펴봐도 흠집 한 군데 안 난 상태인데도 대뜸 범퍼 교환부터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  
학교에 도착하니 보호자라는 남자가 또 전화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자기 부인인데  
뒷목이 뻐뻐해서 정밀촬영을 했다면서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겠다고 통보를 해 왔단다.



- 살짝 달았는데 뻘뻘해지는 그런 모가지를 달고  
여태꺼정 우째 살았능공?

위로 삼아 내가 흥분해 주었지만  
친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 모가지만 그럴다면 말도 안 해.  
받힌 차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고네?  
어이, 친구야. 인피니티란 차가 그럴게도 허약해 빠진 차종이냐?  
- 명함은 받았제? 대체 머하는 인간들이더노? 혹 사기꾼들 아이가?  
- 무슨 정형외과 원장이고 마누라는 저거 병원 기획실장이란다.  
- 참, 있는 놈들이 더하다 카더마는.....  
자기 병원에 쓸데 없는 직책 하나 만들어서  
마누라 임금조로 뺄 땀 칠 인간들인거 겐으마 여간내기들 아이다.  
마 보험처리하고 신경꺼뿌라 마! 아나, 술이나 무라.  
- 세상 참, 꼭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ㅅㅂ~!

그러나 정작 뒤통수는 내가 얻어맞는다.  
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내민다.  
사고 차량 보험 처리했다는 통지서인데  
수리 비용이 자그마치 62 만 원이다.

- 당신 언제 사고 났어요?

추석 며칠 전,  
동네 좁은 골목길을 후진하다가 담벼락에 뒗 범퍼가 긁히고 말았다.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진입한 내가 잘못이었다.  
골목 입구에 코란도가 길을 가로막아 놓은 채 차주는 어디 가고 없길래  
할 수 없이 진입했던 골목을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후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뒗 범퍼만 긁힌 것이 아니고  
앞 범퍼도 자국이 나 있었다.  
뒗 범퍼는 담벼락에 긁힌 자국이 분명하건만 앞 범퍼의 자국은?  
순간 가슴이 뜨끔하였다.  
분명 남의 차를 내 차로 긁은 자국이였다.



다음날 출근길에 현장에 가보니  
역시 골목에 주차된 검은 SM525의 좌측 휠다가 약간 굽혀있었다.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을까.....  
연락처와 함께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잘 아는 정비소에 가서 도색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들이 아는 정비공장에 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험처리가 되는 공장이나고 물었더니 물론 된다고 하였다.  
즉시로 보험회사에다 사고 신고를 하였다.  
담당 직원은 현장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었는지 따지듯이 물었다.  
나는 그냥 내 과실이니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변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며칠 뒤 SM525 차주한테서 전화가 왔다.  
추석 전이라 바빠서 보험처리를 추석 이후에 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두었다.  
 내 차는 내가 단골로 가는 우리 동네 <새차 만들기>에서  
 10 만 원 주고 앞뒤로 말짱하게 도색 하였다.  
 보험 요율 때문에 웬만한 수리는 보험처리를 피해온 터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어도 사고차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머 자기네들이 봐도 경미하게 긁힌 자국 갖고  
 연락처까지 일부러 남긴 사람에게  
 변상조치는 심하다 생각한 것이 아닐까?  
 살다 보면 이런수도 있지 뭐,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가 보다 싶었다.  
 나 혼자 생각으로 들이마신 김칫국이었다.

다음날 보험회사 직원을 호출하여 서류를 살펴보니 세상에!  
 수리 비용이 비싸기로 이름난 르노삼성 남부산영업소에서  
 약간 긁힌 자국을 발미로 웬다와 범퍼를 통째로 교환한 것이었다.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앞으론 뒤통수 보호대를 착용하고 살아야겠다. ㄸㄸ~! ☘

2007.12.17.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11  
 댓글 7  
 표정 짓기  
 공유하기







•



•



•



•



•



•



•



•



•



•

1. 댓글

2. 댓글



안경이(김포)

너무 화 나시겠어요.

1

3. 댓글

4. 댓글



호르는 강물처럼

@안경이(김포)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허무하달까요? ㅎ

5. 댓글



鄭映準(정영준)

세상 참..  
쫓쫓~~

1

6. 댓글

7. 댓글



흐르는 강물처럼  
@鄭映準(정영준)

벼라벌 사건이 다 있지요.ㅎ

8. 댓글



안경이(김포)

저도 같은일을 당했어요~

남편이 살짝 달기만 했는데 목 잡고 내리더니 입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화나기 보다 어의없더라고요.

1

9. 댓글



김강화

남한테 그리 야박하게 하면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왜 이리 배려가 없고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혈안들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2

10. 댓글



남정필(칠곡 64)

어저께 우리 아이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런 사고는 범퍼는 충격완화 부품이니 괜찮아요

하고 너어 갔는데

세상은 울퉁불퉁한 거 같아요

1